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Korea Traditional Archery Culture Society

2026 **일시천금** 소식지  
一矢千金

2026. 3.



KTACS News Letter

인사말 나영일 / 03  
2026년 정월대보름 맞이 안전기원제 거행 공운식 / 06  
활쏘기, 취미에서 생활로 남현경 / 10  
전통의 예(禮)로 굽이친 평생의 활시위 김정상 / 12  
<궁도장비 입문전서>를 기다리며 김준호 / 15  
빈현루 변정용 / 17  
AI 시대의 국궁(國弓) 활쏘기 한용진 / 20  
회원대모집 / 23

\* 표지 사진 - 울산 반구대 암각화 활쏘기

펴낸이 나영일  
엮은이 변정용  
펴냄날짜 2026년 3월 25일  
펴냄범위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 인사말



### 나열일(회장)

존경하는 활쏘기문화보존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활쏘기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래 활쏘기문화보존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몇몇 분들은  
본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한궁도협회와의 관계에서 야  
기되는 불협화음에 대하여 걱정을 하  
고 있기도 합니다.

본 회의 정관에는 제2조(목적)에 “본  
회는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국가무형  
유산 활쏘기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  
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인류무형문화  
유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  
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활쏘기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엄밀하게 논의하다 보면 좀 애매한 부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의 산하인 국가무형유산원  
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 대부분 지  
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  
향사례를 재현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역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  
니다.

활쏘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도 대한궁도협회의 ‘궁도’란  
단어에 집착하는 편협성으로 인하여  
궁도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노력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여 답답합니다.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진흥재단, 국기  
원, 대한태권도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전북  
겨루기 태권도보존회 등이 ‘공동협의  
체’를 구성하여 작년말에 유네스코인  
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고, 올해 초에 차기 신청

대상 종목으로 태권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오는 3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몇 년전에 태권도 추진단에서 2018년 씨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였던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인 본인을 태권도 등재추진위원회에서도 참여해달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우리 활쏘기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서로 경쟁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활쏘기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회의 정관 제4조에는 그 목적에 따라, 1. 활쏘기 문화에 관한 학문적 활동과 관련 교육 및 연구, 2. 활쏘기 문화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3. 국제 활쏘기 문화 협력 사업, 4. 남북한 활쏘기 문화단체 교류 협력, 5. 청소년 활쏘기문화 보급 및 활성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회장으로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알려주시고, 이에 맞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수행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사연수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강화정을 중심으로 양현수장군 승전 기념 한·불 수교 140주년 문화교류 사업으로 활쏘기대회와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 등 그리고 활터순례 등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향사례를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단오편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오편사는 6월 20일에 할 예정입니다.

추후 글을 발표하고 싶거나, 제안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사무국 (ktacs1004@naver.com)에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년 4회 소식지가 나갈 예정이오니, 원고청탁을 받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비도 꼬박꼬박 내주시는 회원님들

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소식지를 멋있게 만들어 주신 변정용  
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추후 글을 발표하고 싶거나,  
제안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사무국  
(ktacs1004@naver.com)  
에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교사연수교육을 준비하  
고 있고, 강화정을 중심으로 양현  
수장군 승전 기념 한·불 수교  
140주년 문화교류 사업으로 활쏘  
기대회와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  
등 그리고 활터순례 등을 계획하  
려고 합니다.”

## 2026년 정월대보름 맞이 안전 기원제 거행 - 백호정 표석에서 전국 궁사들의 안전과 활쏘기문화의 발전을 염 원하다 -



공윤식

(장안편사보존회 회장, 화랑정)

2026년 3월 3일(화),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누상동에 위치한 백호정(白虎亭) 표석 앞에서 전국 400여 곳 활터 궁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엄숙히 봉행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4일 활쏘기문화보존회가 국가문화유산청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전승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활쏘기 문화제의 일환으로 탁본행사와 길놀이 그리고 안전기원제를 백호정 앞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백호정 각자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에 위치하며, 조선 후기의 명필 엄한명(嚴漢明, 1685-1759)의 글씨라고 알려졌습니다. 백호정 각자석은 18세기 서울지역 민간사정의 역사와 문화를 표상하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탁본과 길놀이 행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7호이자 한양 정도 600주년을 기념해 복원된 '장안편사놀이'를 보존·전승하고 있는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1:00

장소: 백호정 표석 앞 (서울 종로구 누상동 72-12)

주관: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

주요 참석자: 서울시궁도협회: 오제흥 회장, 이양우 부회장, (사)활쏘기문화보존회: 나영일 회장, 지동철 사무국장,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 공윤식 회장, 성동성 사무국장,

육군사관학교: 김기훈 교수

공연: 최인주 단장 (송서울창 이수자)

등 총 15명

■ 주요 행사 내용

1. 식전 행사 및 준비

편장 및 편사원 복장을 갖춘 참석자들은 백호정 표석 앞에 제례 상을 차리고 한양전도와 현수막을 설치하며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이어 최인주 단장의 비나리 공연이 펼쳐지며 기원제의 서막을 열고 현장의 기운을 돋우었습니다.

2. 본 행사 (안전기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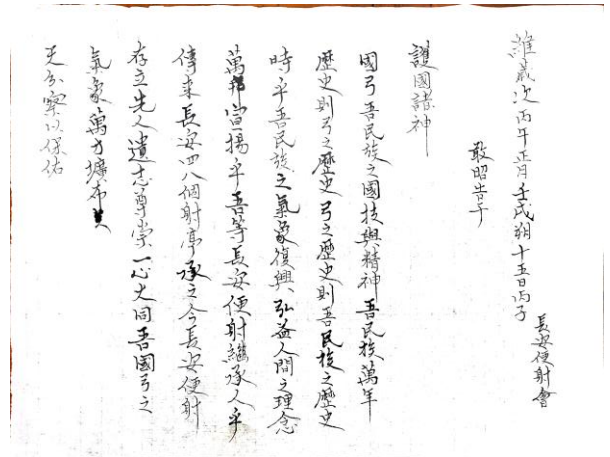
제례는 전통 방식에 따라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 강신 및 초헌: 공윤식 회장이 향을 피우고 첫 잔을 올리며 신령을 모셨습니다.

2) 축문 낭독: 박근 이사가 찬(撰)하고 지동철 사무국장이 낭독한 축문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활쏘기의 눈부신 발전과 전국 모든 궁사의 무사고를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축문]

유세차(維歲次) 임술(壬戌) 정월(正月)



대보름에, 장안편사보존회(長安便射保存會)는 호국제신(護國諸神)에게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국궁(國弓)은 곧 우리 민족의 국기(國技)요 정신(精神)입니다. 우리 민족 만년역사는 곧 활의 역사요, 활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때(時)를 만나 우리 국민의 기상을 부흥(復興)하며,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理念)을 넓히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장안편사를 계승하는 이들로, 예전 48개 활터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제 장안편사를 설립하였던 선인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 한마음으로 이어받아 우리나라 활쏘기의 기상을 드높이고 만방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하늘이시여 굽어살펴 도와주소서!

3) 아헌 및 종헌: 오제흥 서울시공도 협회장과 나영일 활쏘기문화보존회장이 차례로 잔을 올리며 정성을 더했습니다.

4) 소지(燒紙): 낭독한 축문을 태워 하늘로 보내며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 3. 인사말씀 및 폐회

오제흥 회장, 나영일 회장, 김기훈 교수, 공윤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활쏘기가 안전하게 계승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음복을 통해 덕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 후기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근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이서방네순대국)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장안편사놀이의 전승과 활쏘기 문화의 보존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인 김승모 낙원떡집 사장이 떡을 찬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궁신문, 2026년 3월 19일자(백호정 안전기원제 -장안편사는 왜 백호정으로 갔는가- 아래 웹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rcherynews.net/m/view.asp?idx=2540>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활쏘기가 안전하게 계승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국궁(國弓)은 곧 우리 민족의 국기(國技)요 정신(精神)입니다.”



“  
하늘이시여 굽어살펴 도와주소서!  
”

## 활쏘기, 취미에서 생활로



남현경(안양정)

정말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나는 취미부자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취미는 언제든 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되어준다. 활쏘기도 나에게 그런 다양한 취미 중 하나가 되어 주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다. 하지만 활터 문화의 특수성으로 활쏘기는 취미 이상의 어떤 생활양식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대가족과 여러 행사를 함께 치러 나가는 경험은 기대하지도 못한 값진 선물이다.

활터에는 습사예절을 비롯한 다양한 규범과 관습이 존재한다. 일부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은 말로 전해지는 암묵적 문화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 문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신규 사원에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나 역시 집궁 이전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 활터를 찾았을 때 나는 그것을 ‘운동 공간’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방문했다. 그러나 활터에서 요구되는 복장은 기능성보다는 단정함이었다. 활터는 체육시설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에 맞는 태도와 복장이 요구된다. 또, 내가 내는 회비는 우리 공동체를 운영을 위한 회비이지, 내가 활터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가 아니다. 이용권을 끊어두고 마음대로 다니는 헬스장이 아닌 것이다. 활터는 대부분 많은 선배들의 애정 어린 희생과 봉사로 지금 같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일반적인 취미와의 차이는 월례회와 각종 행사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활터는 단순히 활을 쏘는 장소가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다. 월례회 준비, 대회 운영, 식사와 정리까지 모든 과정이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선택적 참여라기보다 일정 부분 당연한 의무로 작동한다. 개인의 취미보다는 공동체 유지에 참여하는 구조에 가깝다.

활터의 이러한 특성이 때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일부 청년층은 입회비 부담이나 분위기 적응의 어려움, 행사 참여 부담 등을 이유로 개방형 활터를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요즘 세대의 문제'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문제는 문화 자체가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사전 정보의 부재에 있다.

활터 구성원 간의 유대는 강하고, 물질적·정서적 나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개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소속감과 효능감을 경험한다.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박해진 관계의 밀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은 충분한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무겁다. 활쏘기를 '개인적 취미'로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단지, 활터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다.

활터는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선택은 개인의 몫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서 시작된 활쏘기는, 행위를 넘어 또 다른 삶의 방식과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활쏘기는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사법을 넘어 다음세대에 남겨주고 싶은 활쏘기 문화와 정신은 어떤 것들일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

끝.

# 전통의 예(禮)로 굿이친 평생의 활시위: 김봉원 고문 납궁례(納弓禮) 봉행



김정상(관악정 재무이사)

## 들어가는 말

서울에서는 납궁례의 전통이 거의 사라져 있어서, 참조할 곳도 없었습니다. 국궁신문 등에 있는 선례를 따르고 예에 밝으신 원로들에게 문의하여 납궁례를 봉행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 1.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3월 2일(월) 11:30

장소: 서울 관악정 사대

주관: 관악정 (진행: 김정상 재무이사)

참석 인원: 약 50명

## 2. 추진 배경 및 목적

이번 납궁례는 평생을 관악정의 발전과 국궁 보급, 그리고 후진 양성에 헌신해 온 김봉원 고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은퇴식을 넘어, 단절되어 가는 전통 활쏘기 의례를 올바르게 실천함으로써 관악정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3. 주요 내빈 현황

본 행사에는 서울시 궁도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서울시궁도협회: 오제흥 회장, 이양우 부회장, 공윤식 부회장

각 정 사두: 나영일(석호정 사두 겸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장), 전성렬(살곶이정 사두), 이재득(석호정부사두) 및 관악정 사우들

## 4. 의례 진행 순서 및 특징

행사는 전통 예법에 따라 엄숙하고 정갈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신제'

와 '납궁'의 의미를 분리하여 의례의 격을 높였습니다.

### 제1부: 사신제(祀神祭) 봉행

활터의 신령께 올리는 제례로, 사두가 제주(祭主)가 되어 분향과 헌작을 주관하였습니다.

이는 납궁례가 개인의 행사를 넘어 활터 공동체의 의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 제2부: 마지막 습사 및 납궁(納弓)

김봉원 고문의 마지막 습사(활쏘기)가 이어졌으며, 이후 사용하던 활과 화살을 공손히 내려놓는 '납궁'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사두가 이를 받아 정위치에 봉안함으로써 한 궁도인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제3부: 헌사 및 화합

공적 소개, 송사, 납궁패 및 청려장 전달, 고문의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5. 주요 성과 및 평가

전통 예법의 현대적 구현: 정식 절차에 따른 납궁례를 통해 궁도 전통

예법을 실제로 구현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세대 간 화합의 장: 원로와 중진, 청년 회원이 한데 어우러져 고문의 뜻을 기림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록 자산의 확보: 행사 전 과정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향후 활터의 역사와 사료 편찬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맺음말

이번 김봉원 고문의 납궁례는 한 궁도인의 삶과 공력을 존중하는 예우의 극치이자, 우리 활쏘기 문화가 지향해야 할 품격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약정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 의례를 지속하여 궁도인의 도(道)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궁도장비 입문전서>를 기다리며



김준호

(동덕여대 명예교수, 화랑정)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라 할 만큼 활에 대하여는 민족적인 DNA를 지녀왔다고 자부해도 좋다.

양궁이 세계제패(올림픽 여자 10연패(38년째), 남자 3연패, 43개 메달(금 27개)을 해온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며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양궁의 감독이나 코치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또한 대단하다는 것은 굳이 수치(파리올림픽 8개 국지도자)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양궁제패의 배경이 되는 큰 요인 중에

국궁의 문화 및 전통적인 사범이 전수, 접목되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활의 나라에서 활을 내면서 계속 생각나게 되는 것은 활장비에 대한 신뢰감 있고 깊이 있는 사전적 안내서가 없다는 점이다.

통상 처음 입문을 하게 되면 사범님에게 기초를 배우고, 사범님이나 구사가 권유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구사들에게 수없이 물어보아야 하고, 귀동냥으로 판단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공인된 신뢰감 있는 궁도장비 입문전서의 공급이 필요하다.

<1 矢 2 弓 3 技>이라고 했으니 활쏘기에 있어서 장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상이다. 가칭 ‘궁도장비 입문전서’에 요구되는 방향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활과 화살을 선택할 때이다. 입문 후 주변에 물어보고, 사범님, 또 각 정마다의 취향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구입하다 보면 후회스러운 경우도 있고, 다시 또 다른 활과 화살을 구입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나 과다 구입하여 보관만 하거나 헐값에 팔아야 하는 등 경제적 낭비와 더불어, 초심자에게는 이 모든 판단에 큰 고민거리가 안겨진다. 따라서 공방업체(2025년 등록기준: 각궁(37), 죽시(11), 개량궁(12), 개량시(19), 깎지 등)의 특성을 확보하여 일괄적으로 나열,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름이 나 있는 공방에서만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장비에 대한 서술이 있기는 하나 구입자로서 참고할 만한 <세심한 기능적인 부분이나 깊이 있는 서술>은 없는 편이다.

이러한 작업은 궁도장비계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공방>에 <일정한 기능적인 기술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항목별로 서술하여 제출하게 하면 전체적인 통일성에 따라 공정성에 일차적인 문제는 없다.

각자들 자기 장비의 장점, 특이점이나 유의점, 단점(?)을 제시하여 자기 장비에 대해 자세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점은 각 공방에서 서술한 내용이 자기 장비를 과다 포장한 경우의 통제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공인심사기준으로 통제하고 있는 <대한궁도협회 담당부서(경기시설. 용품공인 위원회)>에서 검증하여,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공방이 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면 수요자인 국궁인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일들로 가칭 <국궁장비 입문 전서>가 대한궁도협회나 각 지역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인심사결과>와 같이 공식적으로 올려진다면 지도자와 기존 국궁인들, 국궁초심자나 특히 각궁입문자들이 많은 시간과 심리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출구가 될 것이다. 끝.

## 빈현루(賓賢樓)



변정용

(동국대 명예교수, 호림정)

경주시 북쪽에 있는 유서 깊은 황성공원 독산 위에 삼한일통 위업을 이룩한 김유신 동상이 있고, 그 남서쪽 숲속에 호림정이 있다. 호림정에는 여러 건물이 있는데 안압지에서 이 건된 조선시대 8작 기와집은 지방문화재로 호림정의 정신적 중심 건물인데 정간과 호림정 현판이 걸려 있고 접장 명패 및 승단 명패 등을 전시하는 명예의 전당 역할을 한다. 1년에 전후반기로 나누어 물기 잔치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 건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부속 건물로 궁방 겸 개인 보관함이 있는 화랑관이 있다.

그리고 사대 건물은 2개로 각각 3개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드물게 6개관을 갖추고 있다. 동쪽 사대는 동해바다 대왕바위에 모셔진 문무대왕을 상징하는 문무대이고, 서쪽 사대는 흥무대왕으로 추서된 김유신 장군를 상징하여 흥무대라 한다. 본관 건물은 2016년 9월 12일 5.8M 지진으로 부분 파손되어 새로 건립되었다. 이 신축 건물에 어울리는 이름을 짓고 현판을 걸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 천년고도에 어울리는 역사적 명칭을 찾아보기로 하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다. 마침 동경잡기(東京雜記, 조철제 역서, 2014)를 발견하고 연전에 일독한 바가 있기도 하여 찾아보았다.

동경잡기는 기유년(1669, 현종 10년) 경주 부사 민주면(閔周冕)과 이채, 김건준이 함께 간행한 판본을 신묘년(1711, 숙종 37년) 2월에 남지훈(南至薰) 경주부윤이 재간행한 경주(서울)의 역사를 담은 귀중한 책이다.

여기서 신라 때부터 당시까지 역사를 소상히 기록한 책인데 마침내 연관성이 깊은 건물 이름 빈현루(賓賢樓)를 발견하였다. 일련의 검토를 거친 다음 호림정 이사회(사두 성장룡, 2019-2020)는 건물명칭으로 의결하여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읍성 내에 있던 빈현루의 위치는 동경관과 향일문 사이 공간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짐작하건대 임진왜란 때(1592년) 왜군이 점령되었던 읍성을 2차에 걸쳐서 탈환전투를 하던 중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빈현루 건립은 기록에 따르면 1441년 부임한 김익생(金益生, 1388~1450) 경주부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김공은 경주부 백성들의 추앙 받았던 목민관으로 고려 절의 선비 집안(소위 두문동 선비)이며 예조판서를 지냈고, 사육신 박팽년 공이 외조부이면서 효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빈현루의 현판과 기문 일은 김공 다음에 부임한 권극화 부윤이 완성한다.

권공은 생몰연도 미상이나 1414년 알성문과 급제 이후 1439년 전라도 관찰사, 1446년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는데 김부윤이 1441년 부임한 것으로 보아 권부윤은 이 연간에 경주로 오신 듯하다.

활쏘기는 단군조선 초부터 경당에서 미혼 청년들에게 가르친 과목 중 하나였고 낭가제도는 신라의 화랑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신라 이후 활쏘기 관련 사적을 찾던 중 빈현루의 발견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사실 무예시험은 드물게 열리겠지만 국가안보와 상무정신을 일깨우는 상징으로써 무예시험장과 빈현루를 건립하였을 것으로 본다.

빈현루의 현판과 기문에 대한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는 신라천년 수도이면서 영남에 으뜸인 도시이므로 이에 걸맞게 당대 최고 서예가 안평대군(安平大君 李瑢, 1418.9.19.-1453.10.18)의 현판 글씨와 당대 최고 학자인 영의정부사 정인지(鄭麟趾, 1396.10.28.-1478.11.26.)

선생에게서 기문을 받았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만약 안평대군이 쓴 글씨와 현판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면 마치 서울 도성 남대문의 송례문 현판처럼 국보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빈현(賓賢)은 시경 대아 행위 기삼(詩經 大雅 行葦 其三)에 있는 서빈이현(序賓以賢)에서 따온 말이다. 이 시는 주나라(공력전 11세기-공력전256년) 통치집단과 족인들이 모여 활쏘기 시합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이러하다.

“敦弓既堅 四鍬既鈞(조궁기견 사후기균)붉은색 활은 강건하고 네 개의 화살은 고르도다. 舍矢既均 序賓以賢(사시기균 서빈이현) 화살을 쏘아 맞추어 빈객의 순서를 정하네. 敦弓既句 既挾四鍬(조궁기구 기협사후) 붉은색 활 힘껏 잡아당겨 네 개의 화살을 쏘면, 四鍬如樹 序賓以不侮(사후여수 서빈이불모) 네 개의 화살 모두 과녁을 뚫어 빈객의 서열 욕됨이 없네.”

호림정 사우들은 삼한일통 위업을 이룩한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을 기리면서 또한 안평대군과 정인지 선생이 내려준 빈현루에 얽힌 깊은 뜻을 되새기며 궁도를 통한 심신 연마에 매진하고 있다. 끝.

“敦弓既堅 四鍬既鈞(조궁기견 사후기균)붉은색 활은 강건하고 네 개의 화살은 고르도다. ...”

AI 시대의 국궁(國弓) 활쏘기: **얹·함·삶**으로 일깨우는 인간성 지능(HI)



한용진

고려대 명예교수, 양평정)

1. 서론: 알고리즘의 시대, 왜 다시 '활쏘기'인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렌터 휴먼 (rentahuman.ai)' 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며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기계의 효율성이 세상을 지배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필자는 그 해답을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인간성 지능 (HI: Humanity Intelligence)'에서 찾고자 하며, 우리 민족의 정수가 담긴 '전통 활쏘기

(국궁)'야말로 인간성지능(HI)을 체득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 체계라고 확신합니다.

2. 국궁을 통해 발현되는 세 가지 층위

1) 얹(Knowing): 사법(射法)의 이성과 궁도(弓道)의 공감

AI는 화살의 궤적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사대(射臺)에 선 사수의 떨리는 심장과 바람의 결을 느끼는 '통찰'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국궁에서의 '얹'은 화살을 멀리 보내는 기술적 사법(Head)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의와 염치를 중시하는 '궁도9계훈(弓道九戒訓)'을 가슴(Heart)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과녁을 맞히는 '정답'보다, 활을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우주와 자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찬 머리로 기술을 익히고 따뜻한 가슴으로 도를 닦을 때, 지식은 비로소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지혜'가 됩니다.

2) 함(Doing): 시위의 긴장으로 일깨우는 '생명의 약동'

디지털 도파민에 중독되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현대인은

심각한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국궁의 '함'은 이러한 디지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신체적 실천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현의 장력을 온몸으로 느끼고[만작(滿酌), 찰나의 순간에 화살을 놓아주는 발시(發矢) 과정은 우리 안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웁니다. 땀 흘려 활을 당기고 호흡을 가다듬는 행위는 알고리즘이 시키는 클릭이 아니라, 내 몸의 근육과 감각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삶의 철학자 베르그송의 '생명의 약동' 그 자체입니다. 직접 활을 엮고 시위를 당기는 고통과 환희의 반복이야말로 인간다운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3) 삶(Living): 반구저기(反求諸己)를 통한 '행복의 주권자'

AI가 최적의 효율을 계산해 줄 때, 국궁은 우리에게 내면적 성찰을 권유합니다. 활쏘기의 핵심 가치인 '반구저기(反求諸己)', 즉 '화살이 관중되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가르침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이유를 스스로 성찰(省察)하는 자세입니다. 사대 위에서 정적인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있는 영성(Spirituality)을 느끼고, 일상의 작은 흔들림에도 감사하며 스스로 '행복의 주권자'가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3) 삶(Living): 반구저기(反求諸己)를 통한 '행복의 주권자'

AI가 최적의 효율을 계산해 줄 때, 국궁은 우리에게 내면적 성찰을 권유합니다. 활쏘기의 핵심 가치인 '반구저기(反求諸己)', 즉 '화살이 관중되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가르침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이유를 스스로 성찰(省察)하는 자세입니다. 사대 위에서 정적인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있는 영성(Spirituality)을 느끼고,

일상의 작은 흔들림에도 감사하며 스스로 '행복의 주권자'가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 3. 활쏘기는 '주체적 전인'이 되는 나침반

활쏘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앗·함·삶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극한 인문학적 수행입니다. 사대(射臺)에 서서 바람의 결을 읽고 과녁과의 거리를 가늠하는 것은 냉철한 '앗'이며, 전신의 근육을 긴장시켜 시위를 당기고 방사하는 찰나의 폭발력은 '함'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화살이 떠난 뒤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자세는 깊은 성찰의 '삶'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삶의 편리함을 주는 도구라면, 전통 활쏘기는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나침반입니다. 전통활쏘기보존회는 단순히 과거의 기술을 전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흩어진 인간성의 파편들을 모아 앗(지혜), 함(생명력), 삶(성찰)이 하나로 어우러진 '주체적 전인(Whole person)'을 길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최적화해주는 시대일 수록, 우리는 스스로 시위를 당기는 고독한 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에 고용당하는 '렌트어휴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활을 통해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된 '주체적 전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과녁을 향해 곧게 뻗어 나가는 화살처럼, 우리 안의 인간성 지능(HI)을 깨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주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필자소개>

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현 활쏘기문화보존회 이사

\* 이 글은 <전자신문> [칼럼]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성 지능(HI)': 앗·함·삶의 조화"(2026.03.09.)를 토대로, (사)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칼럼에 맞도록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고 다시 다듬은 글임.

## 회원 대모집

1. 활쏘기문화보존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새롭게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2. 주위에 활쏘기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기존 홈페이지(<http://kacs2020.com>)를 4월중에 새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주소는 ktacs.org입니다. 곧 오픈할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를 위해 David Lavaysse와 서정화, 남현경 여무사가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4. 새로이 남현경 여무사가 사무국장으로, 지동철 사무국장이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알림이나 회비 등은 남현경 국장(010-7727-79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Korea Traditional Archery Culture Society

